



남원시는 35억8,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자격을 갖춘 8,100농가에 유기질비료 2,199천포(20kg/포)를 2월초부터 영농기 이전에 공급을 추진한다.

유기질비료 적기공급 추진

남원시, 8100농가 219만9000포 영농기 이전에

남원시는 35억8,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자격을 갖춘 8,100농가에 유기질비료 219만9,000포(20kg/포)를 2월초부터 영농기 이전에 공급을 추진한다.

올해는 전년대비 9억1,700만원(국비 583, 시비334)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관내 전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기질비료 공급으로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번에 공급되는 유기질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과(혼합유기질, 혼합유박, 유기질복합비료)와 가축분퇴비와 퇴비(등급별 3종)으로 지난해 신청을 받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정산입력된 필지별 신청 물량을 기준으로 배정된 물량이다.

비료종류별 보조금 지원단가는 포당(20kg) 유기질비료(혼합유기질, 혼합유박, 유기질복합비료)는 2,000원, 가축분퇴비와 퇴비는 비료등급(특등급~2등급)에 따라 1,700원, 1,600원, 1,400원까지 구분 지원된다. 농가별

배정량은 10a(1,000㎡)기준 가축분퇴비 50포, 퇴비 30포, 유기질비료(유박 등) 40포를 기준으로 배정한 물량이며, 수도작(벼) 재배농가는 현지 재배여건을 감안 유기질비료(유박 등)를 공급 지원한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추진으로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여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찾아오는 살고 싶은 지역' 급부상

주택 구입신축·수리·현장실습비·교육 훈련비 등 지원

임실군의 귀농귀촌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내면서 올해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찾아오는, 살고 싶은 지역'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실을 찾은 귀농귀촌인은 총 1,566명으로, 해마다 2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82명에서 민선 6기 농업정책이 본격화된 2015년에는 647명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도 537명이 진입하면서 임실군의 귀농귀촌정책이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올해에도 뾰족한 도시에서 벗어나 농촌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을 위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임실군이 올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투입하는 사업비는 군 자체사업비 9억원과 국비사업 3억여 원을 포함해 총 12억여 원이다.

군은 자체사업으로 총 7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별로 보면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은 비롯해 주택구입신축 및 수리지원, 현장실습비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정착금 지원, 임시거주공간 지원,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사업이다.

군은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주거비원을 도모하고, 귀농귀촌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 및 귀농귀촌인 임시거주공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하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돕기 위해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선도농가에서의 현장실습과 교육훈련비 지원 등 귀농·귀촌인의 소득기반 마련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국비 사업으로는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과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군은 수도권 홍보와 함께 농촌문화체험, 체험거주공간조성, 도시민 상담교육 등 도시민 유치 활동과 마을 꽃길 가꾸기, 한마음대회 등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도시민 유치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일본뇌염 예방접종

만 12세 대상 무료 실시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만 12세(200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본뇌염,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감염성 질환으로 영유아대 DTaP 기초접종 3회 추가접종 2회 등 총5회 접종으로 면역력을 갖게 되지만, 10여년이 지나면 면역력이 소멸해 만12세에 Tdap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기초 3회 접종후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만 6세와 만 12세에 일본뇌염 추가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매개모기(작은빨

간집모기)에 물렸을때 혈액 내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사망률이 높고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은 질병이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소아청소년과, 내과등)을 방문하여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620-7947, 625-3864)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고창경찰, 건전한 졸업문화 캠페인

고창경찰서에서는 관내 고창고등학교를 비롯, 고창초등학교를 끝으로 41개 모든 학교가 졸업식을 성황리에 마치기 위한 건전한 졸업문화 정착 캠페인을 벌였다.

졸업식 당일에는 강압적 뒤돌이 예방을 위해 학교(학생) 및 패드를 만 등 협력단체와 함께 졸업생들에게 직접 글씨를 제작한 수제쿠기와 초콜릿에 "졸업식 후에는 가족과 함께" "교복을 후배들에게" "밀가루어 안녕" 등 부착하여 홍보 전단지 와 함께 나누어 주어 큰 호응을 얻고 최근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도깨비' 드라마를 패러디하여 '천만하고 따뜻한 학교전담경찰관' 대형 판넬을 전시하여 졸업생들과 가족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있는 추억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또한 '경품뽑기' 행사를 하여 학교폭력예방 홍보물품인 볼펜·사프 세트, 치약·칫솔 세트, 장미꽃 등을 선별하는 등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 활동이 돋보였던 날이었다.

고창경찰서는 앞으로 봄 방학이 끝나는 2월 말까지 야간 청소년 들이 자주 출입하는 PC방, 노래방, 술집 등을 집중 순찰하면서 청소년 비행 및 탈선 예방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축산인 자율 방제단 구제역 방역활동

정읍시는 최초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과 축산인들이 혼연일체로 나섰다.

지난 6일 산내면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인근 칠보면과 이평면에서는 유관단체와 축산인들이 자율 방제단을 조직하고 구제역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자율방제단은 지역 내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 지원과 함께 주요 노선에 생석회와 소독약을 살포하고 구제역과 관련한 각종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정읍농협 3천포, 칠보농협 200포, 순정축협 300포 등 정읍지역 내 농·축협들이 구제역 방역을 생석회를 지원했고, 순정축협 직원 6명은 발생 농장 인근 농가의 예방적 살처분을 지원하고 있다.

시 축산부서 관계자는 "AI 발생에 이어 구제역까지 발생하여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정읍시 축산업의 난관 극복과 발전을 위해 기관과 단체, 시민들이 솔선수범하여 총력 방역활동에 앞장서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6일 산내면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6농가 339마리의 한우를 살처분했다.

또 거점소독시설 2개소와 이동통제소 2개소를 설치하여 구제역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2일까지 지역 내 2천388농가의 우제류(소, 돼지 등) 38만여 마리에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마쳤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문의 288-9700

남원시, 건설공사 청렴문화 워크숍

남원시(시장 이환주)에서는 청렴문화에 슬회관에서 건설사업 및 보조사업 담당자, 진행 중인 건설 및 용역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은 건설공사 부패방지를 위한 자정 결의문 낭독, 일상감사·원가 심사제도 이해, 감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업무공유와 건설공사(상·하수도, 하천, 도로)실계요령, 공사계약, 시공 및 품질관리에 대한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이환주 시장은 "민·관합동으로 건설 및 보조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워크숍을 통하여 상호 신뢰도를 높이고 충실한 설계에서 건설한 시공까지 건설 업무 추진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경찰,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 남계파출소(소장 이동권)에서는 개학철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및 안전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된 신호등, 안전표지의 노후, 훼손상태 점검과 과속방지턱을 비롯한 도로안전시설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확보를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염화칼슘 사용으로 도로의 파손과 유실우려지역 및 강풍으로 인해 훼손된 교통표지판과 육외광고물에 의해 가려져 보이지 않는 표지판의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이동권 파출소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지도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제이엔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